

# 전남 학교 친일잔재 168건 확인

### 전남교육청 중간보고회 “청산작업 지속적 추진” 친일 공덕비·교가·전범기 문양 교표 등 수두룩

전남도교육청은 국치일인 29일 무안군 삼향읍 남도소리유평터에서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중간 보고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친일잔재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대학교수, 교원,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문가 그룹으로 T/F를 구성해 학교 내 친일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도내 153개 학교에서 일제 양식의 각종 석물과 교표, 친일음악가 작곡 교가, 일제식 용어가 포함된 생활규정 등 168건의 친

일잔재가 확인됐다.

일제 양식의 충훈탑, 석등과 같은 석물도 33건이나 발견됐다.

이 중에는 친일인사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와 충훈탑, 교훈비도 다수 포함됐으며, 충훈탑의 경우 일본군 전사자를 기리는 의미의 끝이 뾰족한 묘지석 문양을 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확인된 친일잔재는 교가로 95건에 달했다. 이 중 친일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는 18건이었다.

또 ‘아시아 동방의’, ‘애국학도’, ‘나라 받드세’ 등 일제 친양이 의심되는 가사를 사용한 교가

40건, 표절 및 선술 오류가 의심되는 교가 37건도 발견됐다.

일제의 상징인 욱일기 문양을 한 교표도 눈에 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전범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남 도내 7개 초·중·고에서 욱일기 문양의 교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백지동맹’, ‘동맹휴학’, ‘불온문서’ 등 일제식 용어를 쓴 학생생활 규정도 3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친일잔재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가이스카향나무(241교), 히말라야시다(43교), 금승(2교) 등을 교목(校木)으로 지정한 학교도 286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9월 중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 청산 관련 예산을 요구하면 연내에 예산을 배부해 청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으면 2020년 예산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석물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장석용 교육감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교 내 친일잔재의 실상을 낱알이 살펴 청산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 강화와 민족의식 고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항일을 넘어 극일로 가는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하자”고 말했다.

뉴스1

## ‘담배꽂초 시비’ 러시아인 살해 태국인 검거

‘담배꽂초’ 시비로 러시아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태국인 용의자 3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32) 등 2명과 함께 전날 오후 9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러시아 국적 C씨(2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6일 A씨가 원룸 건물 3층에서 C씨 쪽으로 담배꽂초를 버린 문제로 한 차례 다툰 두 사람은 이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C씨가 A씨를 먼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 연락을 받고 사건현장에 나온 B씨가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습 등을 쫓던 B씨는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 등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

## 순천시 SUV, 도로 아래 10m 절벽 추락

29일 오후 1시13분쯤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의 도로에서 투싼SUV가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하며 뒤집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73)와 함께 타고 있던 여성 3명 등 모두 4명이 부상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뱃길 끊긴 섬마을 응급환자 2명 긴급 이송

여수해경이 뱃길이 끊긴 섬마을에서 80대와 60대 응급환자 2명을 잇따라 육지로 이송했다.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남 오후 7시6분쯤 여수시 남면 유송리에 거주하는 A씨(66)가 자택에서 휴식 중 평소 앓고 있던 당뇨와 고혈압 증세가 악화돼 의식이 혼미하고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신고를 받았다.

같은 마을에 사는 B씨(83)도 고혈압 인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육지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남편 119구급대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해경 구조정은 함구미 선착장에 도착, 2명의 응급환자를 태우고 인근 항구에 이도 대기 중인 119구급차 2대에 각각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 졸음운전 시내버스, 신호대기 차량 4대 추돌

28일 오후 11시05분쯤 광양시 금호동 백운아트홀 사거리서 A씨(51)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택시 등을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와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운행을 마치고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충전소로 향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아파트 화단서 30대 여성 쓰러진 채 발견

28일 오후 5시37분쯤 목포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3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화단에 어린아이가 앉아 울고 있었다며 A씨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치욕의 역사 잊지 말아야” 광주 광덕고서 ‘경술국치 추념식’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29일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 비전홀에서 열린 ‘제109주년 경술국치 추념식’에 참석해 오승현 광주시 부교육감, 하유성 지방보훈청장, 신홍수 광덕고등학교 이사장, 학생 등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9년 전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경술국치일을 맞아 29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비전홀에서 추

념식이 열렸다.

109주년 경술국치 추념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 장, 광복회원, 광주교섭 대표단, 광덕고생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행사는 개식선언과 경술국치 연혁보고, 독립유공자 건국 훈장 애국장 전수, 추념사, 성명서, 결의문 낭독, 구단 구호, 독립군가 제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했다.

이용섭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민족사상 가장 아프고 수치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치욕의 역사가 들려주는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새겨 그러한 아픔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발 화이트리스트가 발효돼 피 끓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지금의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일본을 뛰어넘어야 한

다”며 “세계적인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를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 명을 선도하는 길이자, 일본을 앞서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추념사에 앞서 이 시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1896년 의병에 투신 순국한 독립유공자 김석현 선생에 대한 건국 훈장 애국장을 전수했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경술국치일에는 순국선열을 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가정마다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며 “나라를 잃은 제삿날이므로 검정색 옷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라 없던 우리 민족의 뼈아픈 순국선열들의 피맺혔던 그날을 되새기기 위해 점심 한 끼라도 찬 음식을 먹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덕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으로 주먹밥을 먹는 체험 행사를 가졌다.

조인호 기자

### 신안 자은도에 동물뼈·페미니널 섞인 퇴비 대량 살포 ‘악취’

**24톤 트럭 52대 분량...군 “위법시 행정조치”**

신안군 자은면 일대에 각종 폐기물이 섞인 퇴비가 뿌려져 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3

5명이 무안의 한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24톤 트럭 52대 분량이다.

하지만 퇴비는 제대로 제조되지 않고 각종 이물질이 많이 포함돼 살포된 지역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퇴비를 살포한 영농법인은 당초 8월25일 공급하겠다고 신안군에 신고했으나,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23일 현장에 적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현장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